

로카 디 파파, 2019 년 12 월 7 일

“나는 하느님과 혼인했습니다”

1. 시작과 인사말

2. 트렌토 (이탈리아): 1943 년 12 월 7 일 -2019 년 12 월 7 일

1943 년 12 월 7 일로부터 76 년이 지난 후, 바올로 발두치는 끼아라와 포콜라레 공동체 초창기의 몇몇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를 트렌토로 데려간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도시는 그 곳에서 시작하여 세상 끝까지 이른 시민과 사회 구조의 표징과 형제애의 정신을 실천한다.

3. 이탈리아 트렌토, 카디네와의 연결: 끼아라 루빅-세계 도시

2019 년 12 월 7 일 끼아라 루빅의 인물과 카리스마에 헌정된 국제 전시회 개막. 끼아라에 대한 최초의 멀티미디어 전시회이다. 트렌토 역사 박물관 관장 주세페 페란디와 큐레이터 중 한 명인 안나 마리아 로시가 시작과 과정 그리고 새로움 소개.

4. 끼아라 루빅: “나는 하느님과 혼인했습니다”

끼아라가 2003 년 8 월 13 일 라이 제 3 방송 “나의 900 년”프로그램의 루이지 비짜리의 인터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 분께 대한 자신의 봉헌에 대해 얘기.

5. (콩고 공화국) 루분바쉬에서 보내 온 인사

6. (독일) 오토마링과의 연결

7. (알바니아) 티라나와의 연결

8. (스웨덴) 스톡홀름: 포콜라레, 형제애의 공간

일상 생활 안에서 한 포콜라레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나? 우리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서 집, 직장 그리고 포콜라레 공동체와의 다양한 활동에 동반했다.

9. (피지 섬) 수바와의 연결

10. (트렌토) 카디네와의 연결-3 명의 포콜라리니 와의 짧은 인터뷰

11. (브라질-벨 호리존테) 파토스 데 미나스와의 연결

12. (브라질) 플로리나오 폴리스: “모로”에 위치한 포콜라레

2014 년부터 “Morro della Croce”에 한 포콜라리니 공동체가 살며 플로리아노폴리스의 대중적인 빈민가의 단순하고 가난한 삶을 공유한다. 30 년 이상 그 곳에서 살고 있는 빌손 그로 신부는, 끼아라의 바람이 세상의 변두리에 포콜라레들을 갖는 것이었다고 한다.

13. (트렌토) 카디네와의 연결 –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와 헤수스 모란과의 대화

14. 결론

1. 시작과 인사말

(음악과 자막:
세상을 바꾼 혁명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용기
열정
사랑
그들은 세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았다.
끼아라의 각도는 일치이다.

Chiara Lubich: 내게는 꿈이 있으니, 세상에 보편적 형제애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음악과 자막:
끼아라는 일치된 세상을 목표로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 영감이 당신에게도 주어 주기를)
(박수)

Lorenzo Russo: 1943년 12월 7일로부터 76년이 흘렀습니다. 그 날 23살의 처녀, 실비아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나중에 끼아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2019년 12월 7일, 끼아라 루빅 탄생 100주년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렌조 루쏘이며 로카 디 파파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수)

여러분도 깨달았겠지만, 오늘의 합동전화는 조금 특별할 것입니다. 76년 전에 끼아라가 하느님께 드렸던 그 '네'의 원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고, 또한 세계 곳곳을 둘러 보며 특별히 여러 포콜라레에서 오늘날의 카리스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메일, WhatsApp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합동전화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바랍니다.

2. 트렌토 (이탈리아): 1943년 12월 7일 -2019년 12월 7일

Lorenzo: 우리는 1943년 12월 7일이 모든 것이 출발했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렌토에 가 있는 바올로 발두치의 얘기를 들겠습니다.

Paolo Balduzzi: 붉은 카네이션 세 송이! 아마도 끼아라 루빅이 1943년 12월 7일에 구입할 수 있었던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전쟁이 맹렬했던 트렌토에는 음침한 날씨에 드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23살난 처녀는 성당을 향해 갑니다. 특별한 날, 아무도 모르게 홀로 하느님께 자신을 영원히 봉헌하는 그녀만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 꽃 세 송이는 하느님께 드리는 그녀의 선물입니다. 그 순간 끼아라 자신도 전혀 생각치 못한 특별한 한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대부분은 아직도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음악)

Paolo: 오늘 저는 트렌토의 중심부이며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주교좌 성당 광장에 와 있습니다. 트렌토는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의 도시이고, 역사적으로 수 없이 많은 분열을 겪었지만 또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관점에서 재통합을 추구하는 변방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이런 모든 사건들은 결정적으로 트렌토 시민들의 성격을 형성 시켰습니다.

루치아 프론자 크레파츠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인데요, 트렌토가 고향이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능동적인 시민 의식을 위해 일하고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아직 어렸을 때 끼아라를 만났지요.

Lucia Fronza Crepaz: 맞아요, 12 살 때 끼아라를 만났고, 끼아라 성소의 두가지 측면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즉 지역 현실에 온전히 충실하며 동시에 일치된 세계에 열려 있는 것이예요.

Paolo: 사실 이것은 이 도시의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어쩌면 실비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받은 끼아라 루빅이 지난 세기 초에 이곳에서 태어난 것 역시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1920 년 1 월 22 일이었습시다.

Lucia: 1900 년대 초반, 이 작은 도시에는 세 개의 잡지가 있었는데, 자유주의, 가톨릭, 그리고 사회주의 성향의 잡지였어요. 이것이 끼아라가 태어났을 때의 문화적 사회 배경이었는데, 그녀의 가정 또한 이외 비슷했어요. 아버지는 사회주의자, 어머니는 가톨릭, 오빠인 지노는 공산주의 빨치산 부대원이었고 후에 “일치”라는 사회주의 잡지의 신문기자였고, 여동생들인 릴리아나와 카를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끼아라 스스로도 집에서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끼아라를 알기 위해서는 트렌토시를 둘러보아야 하므로 지도를 갖고 왔는데, 끼아라와 첫 동료들의 모험이 담긴 주요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했어요. 이제 둘러볼건데요, 물론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주요 장소들은 볼 수 있을 것이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Paolo Balduzzi: 고차도로부터 시작합시다.

(환경)

Paolo: 고차도로는 트렌토 동쪽 변두리 지역으로, 12 월 7 일 사건 이후 몇 달 후에 바로 이 숲에서 끼아라 루빅은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도시를 파괴하는 맹렬한 폭격을 피하게 됩니다. 1944 년 5 월 13 일입니다. 루치아, 그 날 밤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Lucia: 경보가 울렸으며, 끼아라의 가족들은, 수많은 다른 가정들처럼, 더 안전하기 때문에 오후와 밤을 보내기 위해 이 숲으로 오게 됩니다. 도시가 폭격을 당하는 동안 부모님은 얘기를 나누며 피난을 가야 한다고 말해요. 끼아라는 그 말을 들었고, 첫 친구들에게 도시에 남아 있겠다고 약속했기에 커다란 고통을 느낍니다. 끼아라는 그 밤을 생각하면서, “별과 눈물의 밤이었다”고 말합니다. 별은 하늘에서 별들을 보았기 때문이고 눈물은 큰 고통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엄마의 굽은 어깨 위에 자신의 베낭을 올려주어야 할 때였습니다. 도시로 되돌아 오다 카발레제리 다리 위에서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네 명이나 죽었어”라고 말하는 절망에 빠진 한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끼아라는 전 인류의 고통을 끌어안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음악)

Paolo: 안드로네 가에 와 있는데, 40 년, 50 년대에 가장 빈곤한 구역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아름답고 잘 정돈된 거리를 보게 됩니다. 루치아, 우리가 왜 여기에 왔지요?

Lucia: 왜냐면 끼아라와 첫 친구들이 복음이 살아야 하는 것 임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지붕에서 부터 바닥까지” 살아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이 거대한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임무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Paolo: 그럼 루치아, 이제 이렇게 합시다. 루치아 친구들이 와 있는데 제게 그들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임무가 오늘 여기 트렌토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얘기해 줄 것입니다. 엘레나 파졸리는 “외국인을 위한 이탈리아어 교육 네트워크”의 의장이고, 무샤는 뚜아레그 족이며 후세인은 아프카니스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세 명이 모두 함께 여기에 왔는데, 왜가요?

Elena Pasolli: 우리의 이야기가 함께 살고 건설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2011 년에 리비아 피난민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숙소와 이 사람들의 존엄성을 위해 여러 도움들을 찾거나, 허가증은 물론이고 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언어 봉사를 했어요. 2017 년에는 다른 유형의 빈곤에도 열려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다른 모든 장소들이 문을 닫는 일요일에 환영과 서로 경청하는 장소가 태어났어요. 무샤와 후세인이 이 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도와줍니다. 우리의 힘은 재산의 공유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일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음악)

Paolo: 끼아라는 교사였는데, 그녀가 정말로 사랑했던 직업으로, 루치아는 내가 사랑하도록 훈련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Lucia: 맞아요. 학생들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 빨강 펜을 갖고 있지 않은 선생님, 과목들을 잘 가르쳤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살도록 가르쳤다고 했어요. 사실 끼아라는 온 일생 동안 선생님이었지요...

Paolo: 지금 우리는 평화의 화단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스텔라 보짜렐리가 함께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tella Bozzarelli: 모든 것은 끼아라에게서 태어났어요. 트렌토를 방문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녔던 꿈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트렌토가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이었어요. 2001년 6월에 일어난 일로, 몇 달 후인 2001년 9월 11일, 뉴욕 쌍둥이 빌딩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던 학교의 학생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끼아라의 사랑의 예술 주사위를 평화의 주사위로 바꾸고자 했어요.

Paolo: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사위로, 여러 면에 '서로 사랑하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자", '다른 사람을 용서하자'라고 적혀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Stella: 아이들은 트렌토가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시장에게 도움을 청했고 시장은 도시에 이 소망을 전했어요. 그렇게해서 "모두 평화: Tuttpace"라는 프로젝트가 태어났고, 트렌토 전 지역과 전 이탈리아로 전파되었어요.

Paolo: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 도시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Stella: 처음에는 서너 명의 교사였지만 지금은 백여 명이 되었어요. 트렌토 주의 모든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평화와 그 가치에 관한 교육 프로젝트를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교수, 부모, 청소년들이 서명한 교육적 서약을 함께 작성했고 이것은 도시의 유산이 되었고, 시에서 제공하는 양성 과정이 되었어요.

(음악)

Paolo: 루치아, 트렌토를 돌며 카푸치니 광장 2 번지를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장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Lucia: 가족을 떠나 보낸 후 끼아라는 여기에 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카푸치니 광장 옆의 검소하고 초라한 집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바닥에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작은 난로와 좁은 복도가 있었어요. 끼아라와 차츰차츰 불어나는 첫 친구들은 이곳에 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첫 포콜라레였지요.

Paolo: 이해가 필요한데, 루치아 그들은 수녀님도, 기혼자도, 세상을 위해서 봉헌한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께 살아가는 삶, 이 포콜라레의 독창성은 무엇인가요?

Lucia: 끼아라는, 그녀가 가졌던 영감은 오늘 날 나자렛 집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기혼자와 동정인이 함께 그들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어요. 끼아라는, 포콜라레는 오늘 날 인류 안에 다시 살아가시는 그분의 현존을 얻기 까지 서로간의 사랑 안에 모여 있었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꿈이고 그분께서 성부께 드렸던 기도인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를 살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폭격에 처한 트렌토라는 작은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 카푸치니 광장 2 번지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이들은 빵과 직장, 무언가를 청하기 위해 왔어요. 하지만 또한 그들의 재산과 열린 마음을 주기 위해 찾아오는 부자들을 위한 자리도 있었어요.

Paolo: 그러므로 이 작은 집에서 퍼져나간 삶은 오늘 루치아와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중요하군요.

Lucia: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주위로 오늘 날에도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았던 거의 400 명에 달하는 공동체가 생겼어요.

Paolo: 아주 오래 전 여기 트렌토에서 젊은 처녀들이 살았던 삶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5 대륙의 600 개 이상의 포콜라레 공동체와 600 여개의 포콜라레에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

(박수)

3. 이탈리아 트렌토, 카디네와의 연결: 끼아라 루빅 – 세계 도시

Lorenzo: 그럼 트렌토, 카디네 마리아폴리 센터와 곧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스테파니아 타네지니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차오 스테파니아, 여기 로카 디 파파와 연결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트렌토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스테파니아, 무엇보다 이 백주년 어떻게 될까요?

Stefania: 트렌토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Lorenzo: 환영합니다. (박수)

Stefania: 정말 아름답고 짝 찬 강당이 보이나요? 전 세계 65 개 국에서 온 350 명의 남녀 포콜라리니, 기혼 포콜라리노들이 엠마우스, 예수스와 함께 하며, 오늘 오후에 우리 모두가 끼아라 백주년 공식 개막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백주년의 슬로건은 “끼아라를 만나기 위해 기념하자”예요. 이것은 2020 년 동안 세상 곳곳에서 있을 모든 행사나 활동들이 그저 끼아라를 그리워하며 기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끼아라와의 만남, 그녀의 카리스마와의 만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끼아라에게 헌정된 첫 국제 전시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트렌토 역사 박물관 재단과 끼아라 루빅 센터와의 협력으로 “끼아라 루빅, 세계 도시”라는 제목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여기 트렌토에서 2020 년 한 해 내내 방문 가능 하며 트렌토 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어떤 전시회인지 가 봅시다.

(음악)

Giuseppe Ferrandi, direttore Fondazione Museo storico del Trentino: 끼아라 루빅의 고향 트렌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렌토 역사 박물관 재단으로서 우리는 예전에 두 개의 터널 도로이고 두 개의 갤러리인 이 박물관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끼아라 루빅, 세계 도시” 전시회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사람에게 전시회를 헌정하는데, 우리에게는 트렌토에 뿌리를 내린 역사적 인물이지만 세상과의 관계의 관점에 있어 거대한 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끼아라 루빅에게 한 전시회를 바치고자 결정했는데, 트렌토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이기 때문입니다. 트렌토는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900 년대의 갈등을 살았던 땅입니다. 갈등의 일부는 공존의 실험장으로서 또한 다리를 건설하는 능력으로 재연구되었습니다.

(음악)

또한 프리미에로의 토나디코에서도 별도의 전시회가 열리는데, 49 년에서 59 년까지의 마리아폴리 경험을 얘기합니다. 물론 성인 전기 작가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인을 만들고 싶지 않고, 그녀를 기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고, 방문자들에게 어떤 키워드를 전해주고 싶으며, 무엇보다 이 전시회가 트렌토 지역과 끼아라 루빅, 트렌토 지역과 세상 간의 만남의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

Anna Maria Rossi, curatrice mostra "Chiara Lubich - Città Mondo": 우리는 이 전시회가 끼아라가 직접 비디오나 자신이 쓴 문서, 알려지지 않은 사진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되고, 한 방문자가 그녀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상상했어요.

900 년대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끼아라를 보게 되어 기뻐요. 끼아라는 지난 짧은 세기의 주요 사건들을 그대로 감수하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인공이 되면서 살 줄 알았어요.

이 또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중요한 메시지가 되리라 생각해요. 그들은 이 전시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학교 생활과 삶의 여정을 위한 흥미로운 요점들을 꼬집어 낼 수 있을 것이에요.

전시회는 세상의 여러 도시에서, 뭄바이에 나이로비, 상 파울로에서 멕시코 시티, 알제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소개될 수 있을 것이에요. 각 도시가 장소의 특성에 따라 전시회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갤러리의 원래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음악)

Alba Sgariglia, co-responsabile Centro Chiara Lubich: 끼아라 루빅 센터는 끼아라의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문서들을 제공했어요. 그렇지만 그녀가 태어나고 자랐던 두 개의 세계 대전의 배경 속에 끼아라라는 인물과 트렌토에서의 그녀의 삶을 통해 본 끼아라만이 아니라, 또한 이 카리스마가 도시 차원과 세계 차원에서 열려있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흔적을 찾고자 했어요.

끼아라의 생각 속에는 모든 도시가 세상이었지만, 전 세상 또한 한 도시 안에 담겨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라고, 모든 방문자들이 자신의 도시가 세상 전체에 열려있고, 온 세상이 자신의 도시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래요. (음악)

(박수)

Lorenzo: 나중에 트렌토와 다시 연결하기로 하겠습니다.

4. 끼아라 루빅: "나는 하느님과 혼인했습니다"

Lorenzo: 1943 년 12 월 7 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끼아라가 직접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음악)

Chiara Lubich: 1943 년도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었으며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파시즘에 동의하시지 않았기에 우리는 단지 생필품만을 가졌으며 매일 2Km

떨어진 곳에 우유를 사러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집안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저 보다 어린 여동생들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매우 추운 어느 겨울 날, 어머니는 큰 여동생에게 “우유를 사 오라.”고 청했으며 여동생은 “너무 추워서 싫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네가 가렴.”이라고 더 어린 동생에게 청했으나 “이 추위에 싫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항상 사랑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제가 갈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보시고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2Km 떨어진 “하얀 성모님(Madonna Bianca)”이라 불리는 곳을 향해 갔으며, 길을 반쯤 갔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니 무언가를 느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라 단지 제가 받은 인상으로, 마치 하늘이 열리며 누군가가 제게, 저는 누구인지를 즉시 깨달았는데,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저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이며, 제 위에 세우신 하느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악)

그 당시 제게는 영신지도 신부님이 있었는데, 후에야 열정으로 불타는 편지였음을 알게 된 편지를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들에게 몇 달간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도록 허락했고, 이를 계속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신지도 신부님은 한 연로한 사제와 의논하시며 “저는 이 처녀에게 종신 서원을 하도록 즉시 허락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할 것이 있으니 저를 방문하기 바랍니다.”라는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는, 900 년대 초기, 아니 중반기로, 영신지도 신부는 악마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제게 어려운 것에 대해 열거하며 질문을 했고, 이 중의 한 질문은 “당신의 여동생과 오빠는 결혼을 할 것이며 많은 자녀를 갖게 되겠지만 당신은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였고, “감실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교회가 있는 한 저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이 영신지도 신부의 질문을 끝내게 했으며, 즉시인지

나중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 전야인 12 월 7 일 날, 아침 6 시에 성당으로 와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으며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그 날 어떤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두 벌 중에서 더 나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쳤으며 비바람을 거슬러 가기 위해 우산을 앞으로 펼친 채 걸어가야 했는데 이는 마치 누군가가 저를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저를 기다리는 신부님이 계시는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성당은 비어있었으나 모든 불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양된 성체 앞에서 하느님께 “저는 온통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작은 장궤틀이 제대가 있는 앞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저는 그 당시 23 살이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 즉 모든 것을 놓아 두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마치 다리 위에 있으며, 내 뒤에 있는 세상과 연결된 다리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미사경본 위로 떨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 “저는 온통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사는 끝났고 저는 뒷 자리로 되돌아왔으며, 제가 내면에 느낀 터질 것 같은 기쁨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과 혼인했다. 하느님과 혼인했다.”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하느님과 혼인했기에 모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¹

(음악)

(박수)

5. (공고) 루뎀바쉬에서 보내 온 인사

Lorenzo: “나는 하느님과 혼인했습니다”, 끼아라의 이 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는 하느님과 혼인했습니다.” 그럼 이 말로 세상을 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겠는데

¹ Dall'intervista di Luigi Bizzarri per il programma “Il mio Novecento” di RaiTre del 13 agosto 2003, per gentile concessione di Rai Teche.

곧장 아프리카 대륙으로, 특별히 콩고 공화국의 루뭉바쉬로 가 보겠습니다. 아미사가 있습니다.

Amisa: 차오!

Tutti: 차오!

Amisa: 콩고 공화국 루뭉바쉬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대표하는 몇몇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끼아라 루빅 탄생 100 주년에 헌정된 한 해를 도시의 가난한 지역에 위치한 병원 개원식과 더불어 기념합니다. 이 병원은 공동체와 '모든 이를 위한 경제'의 기업주들의 의지와 유럽에서 보낸 기여로 건강에 관한 절실한 필요성에 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육신적 건강만이 아니라 관계적 건강과 사랑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이유로 인해 끼아라 루빅이라는 이름을 지니는데, 유아 사망율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끼아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대로 모든 측면에서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의학적 인간적 양성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Tutti: 차오!

(박수)

Lorenzo: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보다 여러분의 열정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6. (독일) 오토마링과의 연결

Lorenzo: 이제 유럽의 독일, 정확하게 말해, 포콜라레 운동의 여러 소도시 중 하나이며 초교파 소도시인 오토마링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전에 올 해 20 주년을 맞이한 "유럽을 위해 함께"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일로나 토스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Ilona Toth: 안녕하세요, 오토마링에서 인사드립니다.

Tutti: 차오!

Ilona: 대회에는 25 개국에서 온 55 개의 운동과 교회 공동체에 속한 300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일치를 위협하는 문제들과 물리적 정치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일치가, 끼아라와 여러 교회 운동 지도자들이 시작했던 참된 교회일치적 그물 망을 형성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망은 구 카리스마와 신 카리스마의 후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간의 사랑의 서약'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다양성을 거대한 부로 여기며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컨대, 민족들 사이의 대화의 장으로, 유럽이 처한 '가치와 관계의 위기'에 하나의 답이 되고자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도시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세상을 그들의 집이라고 느끼는 젊은이들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Lorenzo: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Ilona: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요! (박수)

Lorenzo: 계속 함께 해 주세요. “유럽을 위해 함께” 라는 주제에 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 행사에 관해 다른 웹페이지 <https://www.together4europe.org/> 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7. (알바니아) 티라나와의 연결

Lorenzo: 아직 유럽 대륙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과 26일 밤 사이에 아주 강한 지진이 알바니아 북쪽 해안 두라초 도시 주변을 강타했습니다. 51명의 희생자, 수많은 부상자와 피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포콜라레 운동 구역공동체는 포콜라레 운동 비상 대책 본부, 카리타스 회, 가톨릭 액션 단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이제 티라나 지역과 연결하겠습니다. 마르셀라와 다미아노, 구역공동체의 몇몇 분들이 함께 합니다. 마르셀라,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Marcella: 모두 안녕하세요. 아직도 두려움이 큰데 국가는 이런 비상 사태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부는 아직도 학교 및 일부 병원과 만 이백개 이상의 가구들이 입은 피해액을 추정 중이기 때문입니다. 포콜라레 운동으로서 우리는 아직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확실한 방향을 제공할 줄 모르는 공공 기관들과 관련해 도와주기 위해 몇몇 기술자와 가정들과 함께 운영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백주년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고 느낍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안에서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끼아라를 만나게 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은, 국가와 교구 카리타스 회에 봉사하고자 하지만, 그 보다 더 여러 가정들을 방문하고, 귀를 기울이고, 친척들을 잃은 이들의 고통과 큰 두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이 지진이 심각한 이민으로 인해 이미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서도, 모두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더 큰 선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하느님의 종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보내주신, 도움만이 아니라 큰 사랑을 보내주신 사람들, 그룹들 모두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Lorenzo: 마르셀라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바니아 공동체를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린에서 볼 수 있듯이, “새가정 운동을 위한 활동”과 “일치된 세상을 위한 활동” 두 구좌를 통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www.focolare.org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두 개의 계좌 번호를 다시 보실 수 있고 알바니아 지진에 할애한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8. (스웨덴) 스톡홀름: 포콜라레, 형제애의 공간

Lorenzo: 76 년 전에 끼아라가 하느님께 드린 네로 되돌아 가봅시다. 12 월 7 일 그 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의 축제이며, 동정녀와 기혼자로 구성된 독특한 이 공동체, 모든 것이 시작된 심장인 전 세계 모든 포콜라레의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 생활 속에서 포콜라레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우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서 집과 직장, 일상 생활 속에서 포콜라리나들을 따라 다녔습니다.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음악)

Lidia Fioravanti: 우리는 5 명으로, 3 명은 이탈리아인, 두 명은 스웨덴 출신입니다. 저는 리디아이고 로마에서 태어났지만 트렌토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스웨덴에 와 있는데 포콜라레 공동체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스웨덴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음악)

언어를 배우고, 역동적인 삶 속으로 조금 들어가고, 또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아무 때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일은 꽤 쉬웠어요.

저는 늘 제 길과 성소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포콜라리노들 가운데에서 자랐기 때문에 포콜라리노들은 훌륭하고 늘 미소를 짓고 항상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제가 포콜라레에 매력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 밖에도 어떤 길로 접어들고 빛의 순간이 되면, 그 빛을 통해 자신이 지닌 결점들을 더 잘 보게 되고 깨닫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 순간 저는, 포콜라리노는 바라보아야 하는 한 모델임을 깨달았는데,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인식하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던지기 때문이에요. (환경)

어쩌면 너는 어느 정도 똑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호감이 갈 수 있으며, 다혈질이거나, 실제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 성인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았던 빛을 전해 주기 위해 텅 빈 수로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음악)

포콜라레는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표징이 되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느님의 현존을, 더 넓은 의미에서 보편적인 목적으로서 형제애를 거의 만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포콜라레는 이 때문에 태어났고 사회 속에서 이를 보여주는 표징이 되고자 해요.

Maggi - Margareta Emrén: 저는 마기이고 스웨덴 사람이며 여기에서 1,313Km 떨어진 오로라와 순록의 땅, 눈으로 덮인 북극권을 넘어 더 북쪽에 위치한 옐리바레에서 자랐어요. 여름 중 어느 시기 동안은 밤에 해가 지지 않고 겨울 중 어느 시기에는 해가 지평 위로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기 스톡홀름처럼 그렇게 캄캄하지는 않아요. 몸에 도움이 되는 이런 종류의 램프도 있어요. 여기 스톡홀름 포콜라레에는 기혼 포콜라리나들인 잉거와 크리스틴도 있어요.

Christine Wallmark (in inglese): 요나스와 결혼한지 34 년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소식을 막 알았을 때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많이 슬펐던 시기에 포콜라레 운동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포콜라레 운동에 관한 신문 기사들을 기억했는데, 오래 동안 장 속에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꺼내어 설명도 많이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포콜라레 운동 본부를 찾아 저녁에 그곳에 갔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와서는 제게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기에 중요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동참했는데,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저를 낚아채셨고 그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 늘 사회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스웨덴의 재정과 경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메달의 다른 면에는 우리 서로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함께 얘기해야 합니다. 포콜라레 운동은 사람들이 더 잘 소통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Elena Briacca: 7 년 전부터 여기 스톡홀름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슬로바키아에서 14 년을 살았어요. 저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데 이탈리아 프레알프스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친절하고 멋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나라 슬로바키아와 힘들게 배웠던 언어를 두고 떠나왔어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도착했고 무엇보다 제게 언어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간호사로 병원 수술실에서 일하는데 무척 마음에 들어요. 무신론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가톨릭 신자지만 루터교 국가에서 살고 있기에 스웨덴 루터교인들이 많아요. 직장 동료 중 4 명은 무슬림이고 나머지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적이 있어요. 15 명이 왔으며 관계를 맺기 위해 이탈리아식 저녁을 준비했지요. 스웨덴의 가난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이루기 위해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큰 도움이 돼요. (음악)

Katarina Miksits: 덴마크와 핀란드에는 포콜라레가 없기 때문에 그 곳으로 자주 여행을 가게 돼요. 그리고 스웨덴 자체가 큰 나라이므로 복음적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ambiente)

Lidia Fioravanti: 지금 바스테라스에 가는 중으로, 스톡홀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그곳에서 특히 시리아에서 온 한 그룹의 가정들을 만나요. 그들은 스웨덴에 오기 전에 이미 포콜라레를 알고 있었고, 전쟁과 나라의 불안으로 인해 여기에 왔어요.

(음악)

Maria Luce Moser: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마리아루체예요.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언어를 배우는 중이고, 사람들과 문화를 알고 이 곳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해요. 저는 방금 코테보르그 공동체를 만나고 왔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주말 모임을 했어요.

(ambiente)

Katarina Miksits: 그리고 4 명의 포콜라리노들이 살고 있는 남자 포콜라레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많이 협력하고 있으며 참으로 형제 자매라고 느껴요. 지금은 조금 특별한 시기인데 그들 중 한 명이 암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형제가 아픈 것이지요. (음악)

Paola Cipollone: 이런 평온함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Patrick van Bladel: 모르겠어요. 진단이 내려졌을 때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의 팔 안에 있는 '뽀뽀'라고 느꼈어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데,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신다면 누가 대적 할 수 있겠어요?"

Paola: 만일 오늘 당신에게 한 마디 말을 해야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지요?

Patrick: 우리 영성의 어린이, '뽀뽀'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

Lidia Fioravanti: 포콜라레는 무엇보다 공간과 상황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획일성이 아니라 보편적 형제애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체험하고 그 것을 밖으로 가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환경과 음악)
(박수)

Lorenzo: 포콜라레에 감사드리고, 특히 이 순간 우리와 연결되어 우리를 지켜 보고 있는 스토홀름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패트릭에게 우리의 인사를 보냅니다.

9. (피지 섬) 수바와의 연결

Lorenzo: 이제 태평양 한 가운데, 특별히 피지 섬으로 가겠습니다. 시드니에서 비행기로 4 시간 가야 하고 3,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바로 거기 바다 한 가운데에 마지막 포콜라레가 태어났습니다. 루르데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오, 루르데스 아침 8 시 45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Risposta: 네, 차오!

Tutti: BULLA FROM FIJI! BULLA!

Kata (una Volontaria in inglese, successivamente tradotta): 우리는 끼아라에게 감사 드려요. 그녀의 이상이 여기까지 도달했고 이제 포콜라레가 열리게 되어 행복해요!

Lourdes: 지난 11 월 27 일에 수바에 도착했어요. 내년 4 월에 남자 포콜라레도 열릴 것이에요.

일치의 이상은 카르빌 신부님 덕분에 1982 년에 도달했고, 라미 구역에서 첫 생활말씀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그 후에 뉴질랜드와 호주의 여러 남녀 포콜라리노들이 여행을 시작했고 1990 년에 첫 마리아폴리가 열렸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한 그룹의 피지 젊은이들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쟌페스트에 참가했어요.

뉴칼레도니아, 웰리스, 푸투나, 키리바티를 포함해 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시기 동안 여러 모임들과 지역 교회와 포콜라레가 함께 협력한 마리아폴리, 젊은이와 청소년을 위한

캠프, 어른들을 위한 양성 모임 등 여러 활동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함께 연결되어 정말 기뻐요. 우리 언어로 인사하며 끝낼게요.

Tutti: BULLA!!

Lorenzo: Bulla! (박수)

Lourdes: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Lorenzo: 루르데스에게 감사하고, 우리 모두의 열렬한 인사를 보냅니다.

10. (트렌토) 카디네와 연결 – 3 명의 포콜라리니 와의 짧은 인터뷰

Lorenzo: 트렌토의 스테파니아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스테파니아, 혹시 옆에 누가 있나요?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요?

Stefania: 제 옆에는 오스칼, 피나, 케이트가 있으며, 이 세 명은 끼아라의 길, 포콜라레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오스칼은 24 살로, 콜롬비아인이고, 이제 막 양성 학교를 마쳤지요. 그 학교에서 이 길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며 이 길이 맞는지를 깨닫고자 했지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나요?

Oscar: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레바논으로 가요. 이 기회를 이용해 레바논 사람들에게 인사를 보내요. (박수)

Stefania: 어떤 마음으로 떠나나요?

Oscar: 솔직히 말해 내 안에 여러 감정들,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모든 것이 새롭고, 다 발견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커다란 기쁨을 느끼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생각하셨던 그 모험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Stefania: 그런데 지금 2019 년에 이런 길을 따른다는 것은 광기가 아닌가요?

Oscar: 맞아요. 광기이지요. (웃음과 박수) 광기인데 시대사조를 거슬러가기 때문입니다. 자주 세상이 제공하는 것은 이 선택을 살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네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Stefania: 감사해요, 오스칼. (박수)

케이트는 아일랜드 사람이고 8 년 전부터 미국 포콜라레에서 살고 있지요. 이 8 년이 어땠는지,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얘기해 주겠어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나요?

Kate: 당연히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기쁨의 순간들도 많았고 참된 행복의

순간들도 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저는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놔두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보다는 그분께서 제게 모든 것을 주셨고, 제가 생각하고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가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포콜라레에서, 포콜라레 운동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가정을 발견하도록 해 주었어요. 직장에 가거나, 사회적 의무를 할 때 저는 그곳에서도 가족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노력해요. 그러므로 진정 세상이 저의 가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Stefania: 케이트, 감사해요. (박수)

피나는 이탈리아인이고 기혼 포콜라리나이지요. 기혼 포콜라리노들은 포콜라레에 어떤 기여를 하나요?

Pina: 무엇보다 먼저 세상에 열려있도록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가정과 함께, 가정의 단순함을 지니고 함께 어려움을 직면하고 또한 축제와 기쁨의 순간도 보내지요. 그리고 조금은 포콜라레의 삶, 포콜라레의 현실의 보호자라고도 느끼지만 동시에 포콜라레가 선물이라고 느껴요. 매일의 삶을 위해 충전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박수)

Stefania: 오스칼, 피나, 케이트에게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조금 열어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려요.

Lorenzo: 스테파니아에게 감사드리고, 조금 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브라질 – 벨 호리존테) 파토스 데 미나스와의 연결

Lorenzo: 이제 브라질로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지만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벨 호리존테 지역 파토스 데 미나스로 가 보겠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이 도달한지 50 주년을 맞았습니다. 알바로 조세와 함께 합니다.

알바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Álvaro José de Silos Araújo: 안녕하세요, 이렇게 특별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는 대략 80 여 명으로, 파토스 데 미나스 시와 주변 지역에 포콜라레 운동이 시작된 50 주년 축제를 끝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알리스, 아욱실리아도라와 아바디아로 구성된 작은 그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68 년, 69 년,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카시아스 도 술 도시에서 열린 마리아폴리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와 주변 도시에서 모임, 하루 모임, 마리아폴리를 통해 일치의 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Lorenzo: 알바로 감사합니다! (박수)

12.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모로”에 위치한 포콜라레

Lorenzo: 계속해서 브라질을 여행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Morro della Croce” 지역에 포콜라리니 공동체가 살고 있으며, 플로리아노폴리스의 이 빈민촌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30년 이상 살고 계신 빌손 그로 신부님이 도움을 주고 있는 이 공동체는 세상의 변두리에도 포콜라레를 갖고 싶어하는 끼아라의 바람의 한 표현입니다.

(음악과 환경 – 제목: 모로 (Morro)에 위치한 포콜라레)

Keles Lima (in portoghese): 오늘 이곳에는 마시초 델 모로 델라 크로체(massiccio del Morro della Croce) 라고 불리는 17개 공동체로 이루어진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오천여 가정의 2만 오천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폭력과 마약 밀매, 실업 문제에 젖어 살고 있으며 지금은 이민과 관련된 상대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2014년에 우리는 포콜라레 공동체로 시작했지만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37년 간 살고 계신 빌손 신부님과 함께 빈민촌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여기 플로리아노폴리스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몇 가지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노래)

Teresinha Rosa Machado (in portoghese): 우리가 여기에 왔을 때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물도, 전기도, 아무 것도 없었지요. 숲 속의 멀리 떨어진 우물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새벽 3시엔 물을 길으러 달려가곤 했습니다.

Romalino Martins Moraes (in portoghese): 공동체가 커졌습니다...

Teresinha (in portoghese): 우리는 1997년에 아무 것도 없었던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투쟁을 시작했어요. 창고를 지었고, 성탄 전야 24일에 여기 야외에서 첫 미사를 드렸는데 빌손 신부님을 모셔와서 미사를 집전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축제를 했는데, 여기 사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훌륭한 일을 했는데, 빌손 신부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일은 더 쉬워졌어요. 마을을 개선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면 늘 우리와 함께 머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절대로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Padre Wilson Groh (in portoghese): 이리로 지나갑시다. (환경) 우리는 “시공창 입구”라고 불렀던 이 구역 전체를 다시 건설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예술적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1983년에 이 빈민촌에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매료시킨 것은 복음이었고, 복음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신비적 힘이고 그 안에서 버림받음의 부르짖음을 발견했습니다. 일치의 운동 안에서, 끼아라 루빅을 이해하면서 이 부르짖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변두리를 향해 가도록 해 준 힘은 이런 부르짖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하나의 이름, 얼굴, 장소, 구역을 지닌 예수님이신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환경)

Padre Wilson (in portoghese): 나는 단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나, 흑인들이 있었고

사회적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살러 온 이유는 이 신비의 장소, 신학과 버림받은 예수의 장소에서, 그리고 그분의 버림받음과 부르짖음의 공간에서 제 온 일생을 보냈는데 (환경)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처럼 예수님의 앞치마를 두르는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이 빈민가 내의 포콜라레의 현존은 오늘 날 하느님의 커다란 선물이고, 1962 년도에 끼아라가 자신의 가장 큰 꿈이 변두리 “모캄보스”에 포콜라레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이해와 결부된 것입니다. (ambiente)

Lucival da Silva (in portoghese): 매우 특별한 경험이고 다른 포콜라레에서 살았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거주자의 관점에서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가능한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은 우리를 찾아 와 커피를 마시거나 얘기를 나누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Marco Aleotti: 이 집에서, 놀라웠던 사실은, 텔레비전이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Lucival (in portoghese): 맞아요. 우리가 함께 보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집이 작고 우리의 목적은 이 집이 열려있고, 따뜻하며,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다른 것을 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환경)

Marco: 우리가 보는 집들은 나무로 지은 집들입니다. 아마도 모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은 첫 번째 집들일 것으로 그 후에 벽돌과 시멘트로 짓기 시작했지요?

Helson Bezerra (in portoghese): 이 집들은 그들이 확장 공사를 한 것으로, 가정들에게 임대하기 위해 다닥다닥 붙여서 지었습니다. 온 가족이 침실, 화장실, 부엌이 전부인 공간에서 삽니다. 이것이 여기서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Marco: 포콜라레가 길 옆에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으며 여러분도 사람들을 방문하지요.

Helson (in portoghese): 네, 많은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이곳에 온지 4, 5 년쯤 됐는데, 포콜라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늘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있는데, 기도를 드리는 가정 그룹과 함께 하거나 환자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기회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환경)

Marco: 은퇴를 한 헬손을 제외하고 다른 포콜라리노들은 공부하거나 직장에 다닙니다. 클리페는 특별히 고향인 하이티에서 온 이민자들과 함께 일하고, 루치발은 파젠다 다 에스페란차에서, 켈레스는 마리스타회가 운영하는 500 여 명 이상의 빈민촌 청소년들이 다니는 모로의 학교에서 교육자로 일합니다.

Keles (in portoghese): 마리스타회 신부님과 함께 우리는 사회적 변화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 만을 위한 변화는 아닙니다. 이 사회적 변화는

말하자면 하느님 나라의 관점의 것입니다. 사람들, 각자, 어린아이, 청소년, 젊은이들의 존엄성부터 시작해, 모두들 사이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들이 발견하게 해 주고자 해요.

2018 년에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공동체의 젊은이들과 모임을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참으로 중요했던 것은 우리 가정들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경험에 대해 행복해 하고 만족하며 떠나갔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경험을 다시 할 것이예요. (환경)

Padre Wilson (in portoghese): 저는 포콜라리노들에게 늘 포콜라레가 변두리에서 빛의 현존이 되고, 포콜라레 운동을 위해 필요한 이해를 더 키우는 현존이 되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곧 트렌토에서 일어났던 일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데, 끼아라가 자녀들을 잃은 부인 안에서 인류와 “혼인”했을 때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산으로 피난을 가는 부모님을 잃었지요. 그녀는 이런 “부르짖음”에 처한 인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과정 속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발견해요. 이는 교회의 삶을 위해 큰 선물이고 끼아라가 식탁에서 했던 경험, 한 포콜라리노, 한 가난한 사람, 한 포콜라리노, 한 가난한 사람,,, 이 경험을 계속해 나가는 관점에서 커다란 선물입니다. (환경)

지금 수많은 사회 사업들이 브라질에서 생겨났는데, 이는 일치의 운동, 카리스마의 결실이고 끼아라의 영감을 통해 오늘 날 거대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끌어안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노래)

(박수)

13. (트렌토) 카디네와의 연결 –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와 헤수스 모란의 인사말

Lorenzo: 빌손 신부님과 모로의 포콜라리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트렌토와 연결하겠습니다.

Stefania: 로렌조, 엠마우스와 헤수스와 함께 있습니다.

헤수스, 우리가 방금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보았고 들었던 것과 연관시켜 질문하겠는데,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Jesús: 여러분 모두가 플로리아노폴리스를 보았고, 모로의 경험담, 모로 포콜라레의 경험담, 빌손 신부님과 마리스타회와의 일치의 경험, 그곳의 학교가 카리스마의 놀라운 실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빌손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신비가,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신비가입니다. 그분은 아주 명확한 한 장소에서 이 부르짖음을 포착할 줄 아셨고,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에 열정적인 그분의 사랑은 현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분과 함께 지내며 받는 인상은 순수하고 실현된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무언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보았지만 그분의 행동 방식은 너무나 복음적이기에 그 아래 쪽에 살고 있는 부자들과도 다리를

건설할 수 있었고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 도시에 존재하는 얼룩과 같은 불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자들을 이 사회 변화 작업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끼아라의 예언이 충만히 실현된 것입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살고 있는 뽀빠들은 지속적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현존인 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Stefania: 예수스 감사합니다.

엠마우스, 오늘 하루, 오늘 오후의 뜻밖의 놀라움으로 되돌아 오겠는데,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단지 며칠 전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트렌토 자치주에서 엠마우스에게 명예상을 수여했는데, 성 벤체슬라오 훈장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상을 받았습니까?

Emmaus: 다시 말하지만,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놀랐고 감동을 받았어요. 내게, 내 개인에게 명예상을 주리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내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명예상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반면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수상 동기에서 끼아라와 끼아라의 카리스마에 대한 언급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면으로 이 순간 카리스마를 전해주는 전달자인데 이 카리스마의 표현으로서, 매우 행복했어요. 나는 이 상은 끼아라의 카리스마에, 세상에 흠어져있는 끼아라의 백성들에게 수여된 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흠어져 있는 끼아라의 백성들 안에서 어떤 결실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두에게 수여된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끼아라가 태어났고, 온 세상에 “트렌토 성” 또한 전해주었던 이 트렌토 백성에 속하게 돼요. 이 때문에 나는 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고 감사를 느꼈어요.

나는 오늘처럼 온 세상이 여기에 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태어난 트렌토에, 카디네에 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온 세상에서 모든 세대와 문화를 지닌 대표단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 생각에 이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백주년을 시작하는 끼아라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Stefania: 엠마우스 감사합니다. (박수)

끼아라가 “나는 하느님과 혼인했기에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던 1943년 12월 7일의 그 순간으로 되돌아 가고자 합니다. 끼아라의 이 말은 오늘 날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아직도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침묵) 쉬운 질문이지요! (웃음)

Jesús: 나는 정말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기 동안 여기 이 모임에서, 무엇보다 자신들의 모험을 시작하는 젊은 남녀 뽀빠들을 보면서 또한 그들만이 아니라 나이든 뽀빠들도 보면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웃음), 나이든 이들의 충성심은 중요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신, 유일한 충만함의 가능성인,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플로리아노폴리스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난 후, 우리는 정배에게서 하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곧 이 땅 위에서 마니피캣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tefania: 감사합니다.

엠마우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백주년을 시작했는데, 이 백주년을 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Emmaus: 나는 이 백주년을 빛과 불꽃의 해처럼 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빛의 해로, 끼아라는 늘 우리에게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 인터뷰에서도 이 비전을 반복해 말했는데, 일치된 세계의 비전, 실현된 형제애의 비전을 제시했어요.

나는 이 빛이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끼아라와 그녀의 카리스마에 대해 알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 역시 이 비전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비전 없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느껴요. 그러므로 또한 불꽃의 해이기를 기대하는데, 끼아라와의 만남을 통해 여기 트렌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듯이 다른 대륙에서 하게 될 모든 전시회에서, 이 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하게 될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서 각자가 끼아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끼아라의 카리스마를 접하고, 조금은 이 불꽃으로 불타오르며, 이 불을 전하는 불꽃이 되어 그 후 각자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 가 주위에 다른 불꽃을 켜고 오로지 하느님만이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의 변화를 참으로 실현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에 이 사랑의 불꽃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박수)

Stefania: 엠마우스와 헤수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로렌조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트렌토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박수)

Lorenzo: 스테파니아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

14. 결론

Lorenzo: 웹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www.focolare.or 와 www.centrochiaralubich.org, www.centenariolubichtrento.it 무엇보다 젊은이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끼아라에 관한 새로운 책이 출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이태리어판 만 있습니다. 마우리치오 젠틸리니의 책으로, 치타노바 사에서 출간했고 제목은 “끼아라 루빅, 역사와 예언사이의 일치의 길” 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일요일 “항상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성탄 구유의 가치와 의미에 관해서 모두에게 글을 썼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의 어린이들인 남녀 4 젠들은 올 해 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냈다”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의 중심에 다시 놓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온 세상에서 그들이 직접 만든 아기 예수님 상을 전해줄 것이고 수익은 올 해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한 레바논의 농아학교와 콜롬비아 보고타 우니다드 사회사업 본부에 전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4 젠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합동전화는 2020 년 2 월 1 일 12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와 음악)